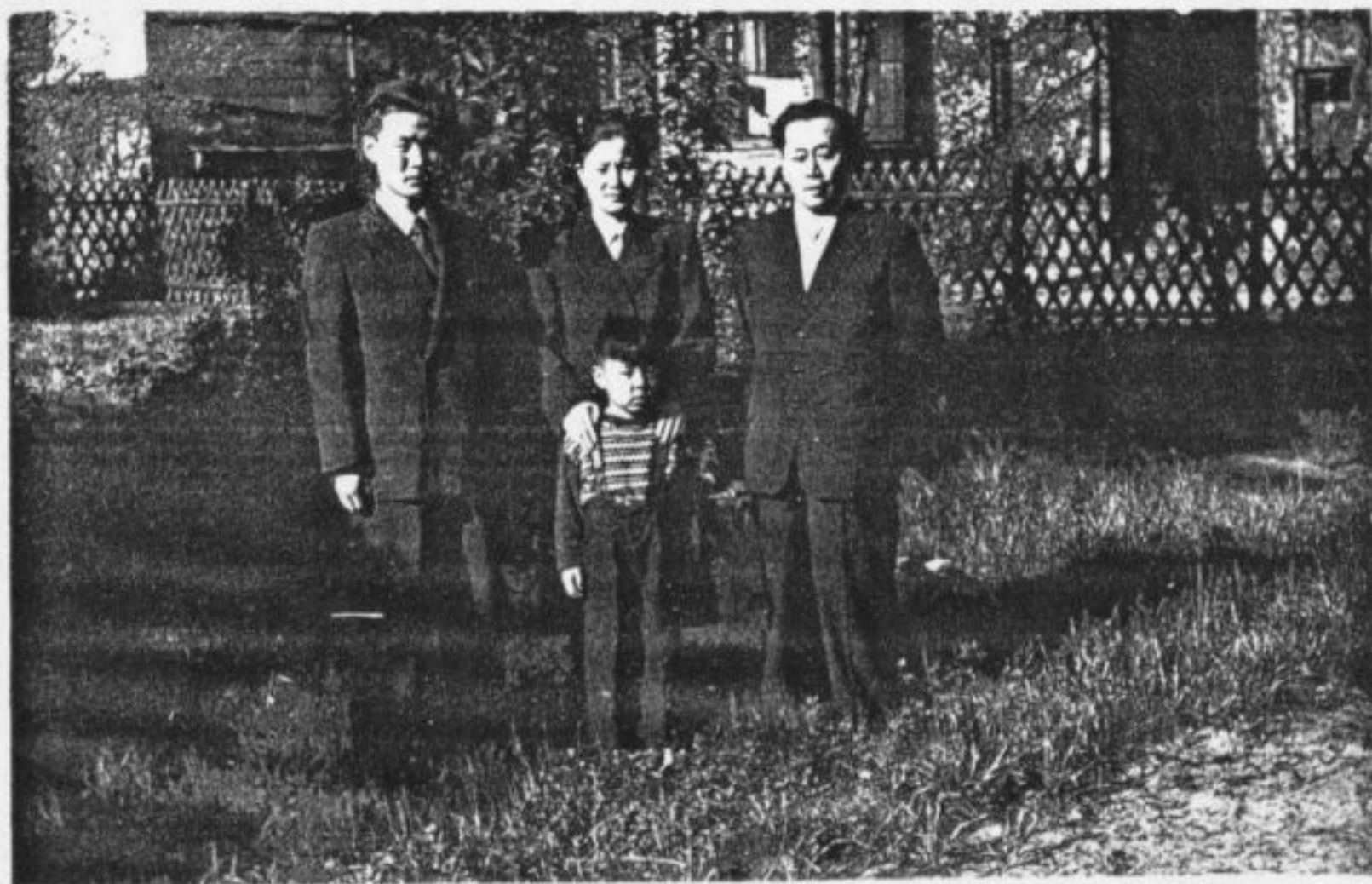




북한 정부 조위회 김두환 소장



북한 정부 동독 주재 대사관 함사로 계실시 김두환.
중가운데부터는 박예까지제리나 부인과 아들, 좌-영사.

남치당한 김두환 소장

사상검토 결과에 할평남도예 유행사리 가엿던 김두환씨는 당중앙 부부에서 속히 평양에 올라 오라는 전화를 받고 1964년 8월 14일에 평양 자기사택에 오셨댔다. 그때에 바로 자기 부인 박 예가씨리나는 집에 안게섯기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열집 사택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부탁하기를 「네가 함흥에서 바로 올라오는길인데, 우리집사람이 안게시기 때문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당중앙 부부에 잠깐만 다녀볼터이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30분전에 갔다고 예가씨리나 아크리님께 어웁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하였다. 그 말을 듣고 예가씨리나 아크리님은 마침 광복기념전날에 왔다고 기뻐하시면서 구획한 세간사리리만 주안있는 음식을 정에서 정성스럽게 대접하겠다고 저녁식사를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난 3시경에 동네 사람들이 다 만나 보고 언사하였다는데 벌써 저녁식사로 다 준비되고 시간은 저녁 7시가 되므로 두환씨는 오지않아 예가씨리나 아크리님은 울밖에 나서고 있었다. 어레나, 어레나 하면서 기다리던 예가씨리나 아크리님은 밤 12시까지 기다리므로 두환씨는 도라오시지않았다. 예가씨리나 아크리님은 밤에한잔도 어루지 못하고 뜬 눈을 밤을 지내고 8월 15일날,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 전에 당중앙 정문에서 가서 절대원을 찾으니 보초병들은 아무 것도 보지도 못하고, 내복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근방에

서서 었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가 제리나 여르너는
 하든 무엇이 집에 돌아와 남보기 부끄러워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잘 알고 있을만한 몇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또, 그것이 별일이라기 할뿐, 다른 속풀릴만한 대답은 없었다.
 그 다음, 예가 제리나 여르너는 광복절이 지나가면 당중앙
 간부들에게 가서 독화서의 행 처를 알수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김두환 씨는 1905년 10월 13일에 북한, 함경북도
 회령읍에서 탄생하였다.

어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김두환씨는 부모를 따라
 원동변방 어누원구역 고르제업이 촌으로 이주하
 여 갔는데 그 촌에서 1918년에 초학교를 나왔다.

1919-1924 부모와 협력하여 농사에 종사함.

1924-1927 원동변방 소베르구역, 한흥동에서 초중학.

1927-1930 원동변방 독립군단 제 26사단, 76연대
 에서 사격수로 활동함.

1930-1932년 "새길" 결핵회 회장

1932-1935년 원동변방 하바롭스크시에서 공산대학원.

1936-1937년 원동변방 한카이구역 "신두원" 결핵회
 당위원회 위원장.

1937-1938년 호레즘 주, 공산주의구역 초중교장

1939-1943년 호레즘 주 후르민구역당 지도원,

1943-1945년 호레즘 주 후르민구역, "바이날-리날" 결핵회
 당위원장.

1945-1948 북한, 함경남도 소군사령부 출판물 편집원,

1948-1950 북한 내무성 경비국 정치부장.

1950년에 동족상쟁이 시작되자 삼환선 경비로 여단장으로 임명되어 1950년 6월 25일 아침 5시에 맨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고 남침한 여단장으로써 북한 정부로써 수취에 걸쳐 극기훈장, 자위독립훈장을 수여 받고 1953년에, 전쟁 말엽에 임박하여 북한 육군대학 단기 강습을 필한다음 정부 호위 여단 여단장으로 임명되어 1955년 초까지 복귀하였다.

1955년 - 1957년에는 동독주재 조선대사관 영사로써 복귀하였는데,

1957년 1959년 평북시 시인위원회 상임부장,
1959-1962년 대외무역성 부장으로 일하시다가

1963년 중순에 함남도 함흥주변 소기업소 복귀대인
으로 파견, 1964년 8월 14일에 평양에서 남치당선.

망국정책, 인간에 대한 배혜주의를 일삼아 북한이 전혀
진실한 간부들을 내놓지 않을 채 단한 김일성의 골도들은, 차라리
죽어라 자기가 죽어도 최후의 정직한 자기 친구들을 허위 날조
하여 살해하지 않으려는 김두환씨와 같은 간부들도 일군자로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대외무역성에서 일하시던 정무원정류 간부
들은 소련에서 나온 간부들에 대한 재료를 두황씨보고 확인하
라니, 또 자기가 전혀 알수없는 재료들을 요구하거나 하는데
대하여 두황씨는 차일피일 벌기기도 하고, 거절도 하였다.
김두환 선생은 소련간부들중 사업경험이 풍부한 가장 노숙
한 간부였다. 그는 소련에서든 소련군 정무원 복무를 법적으로
끝냈어도 소련 공산대학을 필한다음 당-정치 사업을 계속 하여
왔으며, 북한에 가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두황 선생에게서

거절을 받은 정치보위부 간부들은 그 선생을 경양에 두었다
 예가 재리나 아크리나는 자기들에게 별의미가 없었던 것을 확인한다는 함정남
 도에 유형사리를 보내었다. 이것은 임시적 필요에 의한 조치
 였으나 정직한 김선생은 악당들의 조주하든대로 유형지
 에 가서 계시다가 김두환 선생의 죽음이 필요할 때에는 그 선
 생을 불러다가 도중에서의 동행 불명자로 만들고 선생의 생명을
 배배 앓고 심문중에 앓은 죄인들에게는 김선생의 1평의를 조락
 한 허위물건을 보이면서 「이것이 그 선생이 준 물건이 아닙니
 까? 라고 하면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자는 천인
 공노할 허위날조자들의 보충적 행사였다.

예가 재리나 아크리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자 오십이 넘
 도록 누굴 한번 속인 일이 없고 남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해본 일이 없는 정직한 항상 인자고 자기 남편 김두
 환 선생을 무한히 존경한 녀인이다. 예가 재리나 아크리
 나는 광복절이 지난 16일, 17일, 18일 연 3일을 당중앙간
 부부에 명회를 요청하였으나 중앙당 출입구 근방에도 갈수가
 없었다. 당중앙 본부로 불어 나오는 사람들과 물이런 전복 다
 어 구름님을 한가지 대답 「잘 알수 없읍니다」 라고 되치
 고는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였다.

노위 법치국이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인륜극악한
 조선 인륜극악의 국가가 어러하니,

이것이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생생한 사람을 앓고도 알아볼 길이 없으니,

예가 재리나 아크리나는 조리로 바르 중앙 전화국에 가서
 김선생이 내려가서 앓하던 함정남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즉 ^{다중당 간부들의 송환에 의하여} 형사 8월 13일에
 연사하고 떠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14일에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고 옆집사람들이 만나 봤다는 것도 사실인데
 진실이 허실로 되었으나, 이 일을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었다.
 허는색 없어 그 이튿날 불어는 평양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다니면서 방조를 받았다. 대사관은 경시공물을 내어
 조선 외부성에 보내줬던바, 외부성은 삼일육에 회답하기를
^{김주환씨의 행적을 알수없는 아무런 한 근거도 없으나,}
 차후 어떠한 흥보라 될수있을지 알리겠다 고 하였을 뿐이다.
 그후 예까지러나 아즈너니는 계속 대사관으로 다니는 한편
 중앙당 간부들에게, "경애하는 어머니 김일성 주석에게서" 편지를
 내고 시내 무역과 시경 무역에 수화 다니면서 각 구급처치
 소에서 입수되는 재물에 따라 죽은 사람들을 궁에서라도 두한
 선생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알지낼수 없었다.

예까지러나 아즈너니는 매일 날이 밝으면 대사관
 중앙당 시경 무역^부에 다니면서 오개월 동안 애하는 것은
 예 눈물을 많이 흘리었으나 - 알아볼 길은 전혀 없었고
 단 한가지 믿음을 잃고 살게 되었단바 그것은 날이 저물어
 어둠이 되면 집에 들어가 앉아서 출업할만 처다보면서
 인제나 - 인제나 들어오리가 하는 믿음이였다. 예까지러나 아
 즈너니는 김선생이 행방 불명어 된지 오개월이 넘고
 족 소식어 없고 너무나 답답하기에 결심하고 김선생
 내려가 정비사리하던 한경남도 평우리, 평우한강에
 가 보려고 결심하였다. 한송까지의 기차에 타고 다음
 은 계속 배변을 하고 산골길로 십시간 동안 계속

가야 되었다. 한광에 도착하고 보니 한 두테-삼골, 어렸을
 때에 댁으로 들었던 곳이었다. 그제야 예제리나 아로너는
 어렸을 때에서 자라남 편을 얼마나 고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
 으려 "어린" 김일성 악당들은 어대간 우남은 간부들은
 유형보씨 허제로 썩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었다.
 김선생이 일년 동안 한숨쉬고 흥분한 눈물 흘리던 밤에서
 자고 자고라 아침은 눈 옥수수 바 황근식 얻어먹은 잔간 한광
 사후실에서 지배인과 당조직원을 만나 김선생의 소식은 들으니
 그들은 허주동성으로 8월 12일에 이을 끝내 평양 당간부
 부에서 왔다 가라고 하기에 간다고 하면서 13일 새벽에는
 정적이 떠나갔다고 하고, 김선생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니 "당
 "한 법이 없어 살어 죽어 버리고" 하면서 "진중일 지나가야
 거지 물어보는 말이나 눈 익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주는
 정도였다고" 하였다. 예제리나 아로너는 다시 김
 선생이 살던 집에 돌아 오면서 생각하기를 "아라 유형
 사리 귀치 많아서 그렇게 말하여 속을 속였던 모양이
 라고 인정하였다. 집에 돌아와 김선생의 짐을 전복다 해쳐
 보고 그것을 전복다 가지고 평양에 오려 하다가 죽어 아근
 어님 보고 그대로 죽고 가니 현할까지 다른 소식은 없
 으면 집에서 다 사 용하시라고 하였다. 예제리나 아로
 너는 농촌에서 그렇게야 구차하게 ^{살리라고는} ₁₂ 짐작하지 못하였다.
 죽은 집에 네 식구에 두방언이 집안에는 의복장이나
 세간 그릇장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의복도 여유한 건 없었다
 내복은 처녀에 빌려서 새벽에 다시 입고 가려 하며, 먹은 것은
 옥수수, 조어쌀, 밥살은 20%나 환난한 요리 12월 13일 배급은 콩과

400그램, 아이들은 300그램씩 주는데 오죽더 절반씩은
 굶는 형편에서 지내곤 했는데, 네 식구에 어불한채를
 가지고 어를 들은 걸로 봐서 아이들은 자기 터복이나 어로들터
 의복으로 가라구 자는 형편이었다. 신할은, 서할중늑에 학교
 에 다니는 아이들만 반수와 쌀을 배고 단내며, 동남에는 집안이
 나, 극상하에서 고무신을 얻어 신는대리 제 일 좋은 형편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예까지러나 아크러니는 자기난
 편이 물건을 찾아가서도 형편이 못되었다. 평양에 돌아온
 예까지러나 아크러니는 아이들은 대사관을 통하여 소련으
 로 공부하러 (아를 형제) 보내고 본인은 소련 대사관에
 노무직으로 취직하였다. 이것은 우선 아직 평양에 계속 남아
 었자면 국산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둘째로 대사관에 취직할
 것은 소련 대사관 노무원은 집에서 내뚝구지 못하였던 것이
 옳고, 본인의 신분 면전도 어느정도 보장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당시에 평양은 소련서 온사람들에게 한하
 여 무시-무시한 도시였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간부로 지내던
 사람은 평양에서 거이나 다 없어졌지만 소련에서온 간
 부들은 일왕나전 된셈이었다. 소련간부로서 김옥이나 유
 형사리 만하고 일하는 사람은 김봉출, 방학세, 김학인
 세명뿐이었다. 여벌들의 가족은 볼리 잘알지 못한 가정
 으로서 예까지러나 아크러니는 한번도 그집들에 갔다온
 일도 없었지만 김선생이 유행지로 떠난 다음에 어린
 예 아크가 가까이 단내던 집들이서도, 지어는 이웃에서
 는 집들도 서로 한나번 인사도 안받으려고 눈을 돌리고
 지나가는 정도거나 이평양 생활이 그분위기 전부터 망한
 표상이었다.

이렇게 무심-무심하곤 가슴이 죄우는듯한 안혹속에서
 나의 눈치를 보고 살기란 여간바쁜일은 아니었으나- 가느다란
 실노리만이라도 연결되어있다고 짐작한 그 믿음, 자기 남편
 김선생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다보니, 벌써 세월은
 흘러 김선생의 자취가 잃어간지 몇한해가 지난 1975년
 에 와서는 예까지리나 아즈너니도 평양에 계속있었다
 해야 김선생을 만나볼수없는 희망은 없다는것을 판단하고
 아이들을 달아 소련으로 오면서, 만약에 김선생이 살아
 있다면 소식만 비슷하게라도 들으면 다시 돌아갈 결심을가지
 고 있었다. 예까지리나 아즈너니가 물면서 평양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보니, 이제 2년을 더 있으면
 불쌍하게 자란 딸아들과 환갑이 돌아오고, 예까지리나
 아즈너니는 당연 85세가 되나 김선생에 대해 위로와
 정성을 드리지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던바 매끼 식사하
 실때이면 김선생의 수절도 꼭 같이 갖아놓고, 또 저녁에
 자리에 눕으실때에는 김선생의 침주도 꼭 같이 드리놓고
 으시곤 한다. 그러면 예까지리나 아즈너니는 어느때까
 지나 계속 어떻게 지내시겠는가?

비인간적으로 남편을 배배앞아간 북한정복로 불어
 공식적 부고를 받기전에는, 살아계시는한 계속할것이다.
 사람의 애말라 죽게하는 역사를 빛어내는 나라가 북한
 위에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말인가?

우르베코스한 고려인 유가족후원회.